

JIPYONG SUSTAINABILITY REPORT

1부 . 법무법인(유한) 지평 소개

법무법인(유한) 지평(이하 '지평')은 2000년 4월 3일 창립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 297명의 변호사, 외국변호사, 회계사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구성원의 행복, 고객 만족, 사회 공헌'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사람 중심, 진정성, 진취성'을 가치로 여기며 지난 20년의 역사를 형성해 왔습니다. 지평은 오늘도 최고의 실력과 정성으로 고객에게 헌신하며 사회에 공헌하는 글로벌 명문 로펌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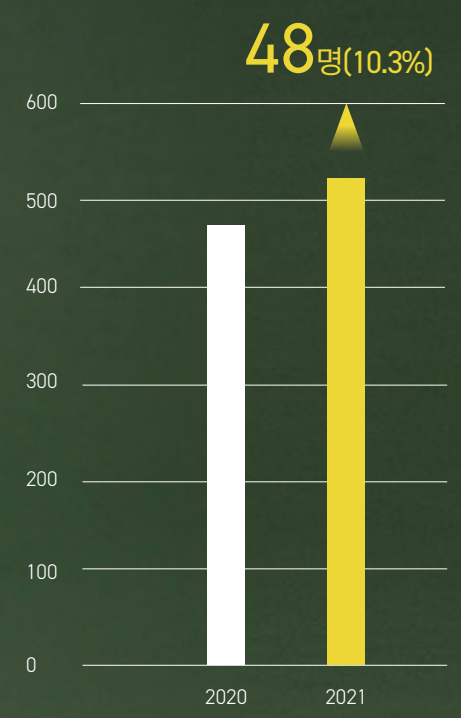
2021 Highlights

전체 매출액 **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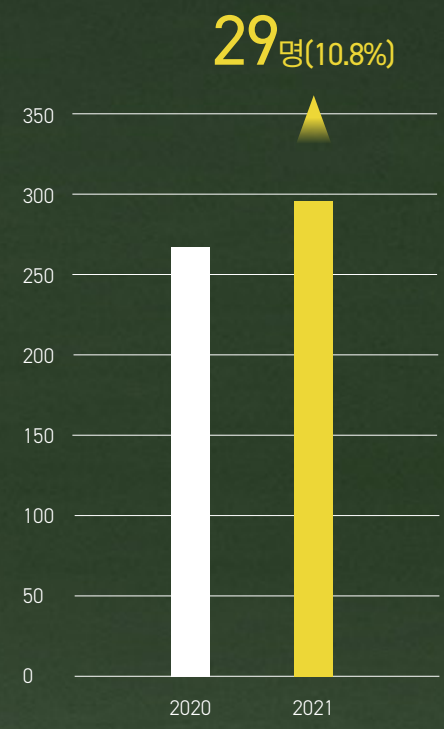
평균급여(직원) **7.5%**

*직책수당, 복지비 포함시 9.7%

총 임직원 수



전문가 수



*해당 연도 12월 말 기준

2021 ESG Highlights

Environment

자원순환

지평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특별전

- 1,987개 물품 기증
- 3,173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효과
- 절감된 탄소배출량 8,813kg

폐현수막 파우치 만들기

- 버려지는 현수막을 파우치로 재탄생

지평 플라마켓

-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플라마켓
- 자원순환의 가치를 되새기고 수익금 기부

기후변화대응

Paperless Office

- 탄소배출 감소
- FSC인증 친환경 용지 사용

친환경 차량 정책

- 업무용 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 교체
- 다인승 차량으로 운행차량 감소를 위해 노력

에너지 소비 절감 프로젝트

- 다양한 환경 이슈에 대한 내부 관심 환기를 위한 노력
- 평등메일, 환경실천소모임

Social

이해관계자 소통

구성원

의견청취
협업체
설문조사
고충창구
웹진

고객

세미나
뉴스레터

지역사회

법률/비법률 공익활동
NGO 협력사업
업무협약

법조사회

위원회 활동
전문세미나
법제연구
실무수습
법학교육

협력사

구매미팅
방문

언론

보도자료
인터뷰

Governance

사회적가치 경영

사회적가치위원회 위원장

윤리위원회 위원장

경영위원장

경영위원

공익위원회 위원장

HR위원회

환경실천소모임

사회적가치 경영 시스템 구축과 내재화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및 내부웨бина 개최
온라인 내부신고 시스템 '소통하라인'

기업, 공공기관, 시민사회의 사회적가치 실현 지원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 법률자문

코로나 시대의 공익인권활동, 공익소송 및 연구 지원사업

9개 프로젝트 선정 및 지원
거리청소녀, 장애성인학생 지원금 지급

01

법무법인(유한) 지평

PROFILE

법인명 법무법인(유한) 지평 (JIPYONG LLC)
대표변호사 김지형, 윤성원, 박정식, 양영태, 임성택
설립일 2000년 4월 3일
본사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A동 26층

ORGANIZATION

지평은 여러 위원회를 통해 경영의 각 영역에서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구성원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공익위원회, 윤리위원회, 홍보위원회, 교육연구위원회, 마케팅위원회, 문화소통위원회, HR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각 위원회의 전문가들이 경영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구성원의 의견에 기초한 책임 경영을 구현하기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GOVERNANCE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른 특수법인(유한 법무법인)으로 유한회사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변호사들의 파트너총회는 경영의 기본방침 및 지평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주요 경영 현안 등을 민주적으로 의결하고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파트너총회에서 선출된 경영대표변호사와 경영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경영위원회가 파트너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책임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사회적가치를 경영의 중요과제로 실천하기 위하여 사회적가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동하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김지형, 윤성원, 박정식, 양영태, 임성택
경영위원 양영태, 김상준, 사봉관, 이소영, 이행규, 정원
사회적가치위원회 김지형, 양영태, 임성택, 김상준, 황인영, 김영수, 서준희

SERVICES AND SPECIALTIES

지평은 모든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별, 분야별, 산업별로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고객의 필요를 정확히 진단하고 고객과 함께 위기에 대응하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송 건설·부동산 / 금융·증권·보험 / 경영권분쟁·투자자소송 / 제조물책임·소비자분쟁 / IP·IT / 해상·항공 / 형사·헌법·행정 / 상속·가사·가업승계 / 조세 / 노동 / 도산 / 공정거래 / 언론 / 국제중재 / 상사·민사 / 의료 **자문(회사)** M&A / 회사법 / 기업자문 / 기업지배구조 / 해외투자 / 국제거래 / 도산·구조조정 / 조세 / 에너지 / 환경 / 바이오·제약·헬스케어 / IP·IT / 엔터테인먼트 / 공정거래 / 노동 / 공공정책 / ESG **자문(금융)** 부동산금융·실물투자 / 프로젝트 파이낸스 / 구조화 금융·파생금융 / 인수금융 / 선박·항공기금융 / 해외금융 / 금융규제·금융회사 / 사모펀드·PE / IPO·자본시장 / SOC **해외**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MEMBERS

지평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¹⁾와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지평의 전체 구성원 516명 중 전문가는 297명이고, 직원은 219명입니다. 한국변호사 중 구성원변호사²⁾가 97명, 소속변호사가 127명입니다. 자격국가별로 나누면 한국변호사가 224명, 외국변호사는 47명입니다. 지평은 다양한 국적의 구성원이 함께 일하고 있고, 외국변호사의 자격국가도 다양합니다.

1) 이 보고서에서 변호사, 외국변호사, 공인회계사, 전문위원 등 로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구성원을 '전문가'라고 표시합니다.
 2) 지평의 모든 전문가와 직원을 '구성원'이라고 표시하는 것과 구별하기 위해 이하에서는 법무법인(유한)을 구성하는 변호사(변호사법 제58조의6 제1항)를 '구성원변호사'라고 표시합니다.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구성원변호사(Partner)와 소속변호사(Associate)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위 : 명, 2021년 12월 31일 현재)

한국변호사	구성원변호사	97	297
	소속변호사	127	
전문가	외국변호사	47	
	한국회계사	1	
기타 전문가	외국회계사	1	
	고문·자문·전문위원·컨설턴트	24	
직원 합계		219	
지평의 구성원 합계		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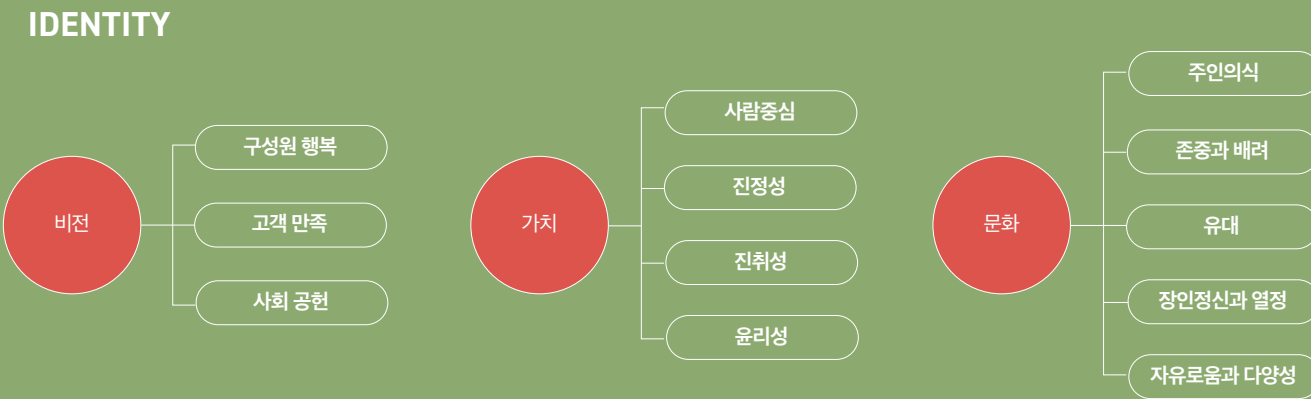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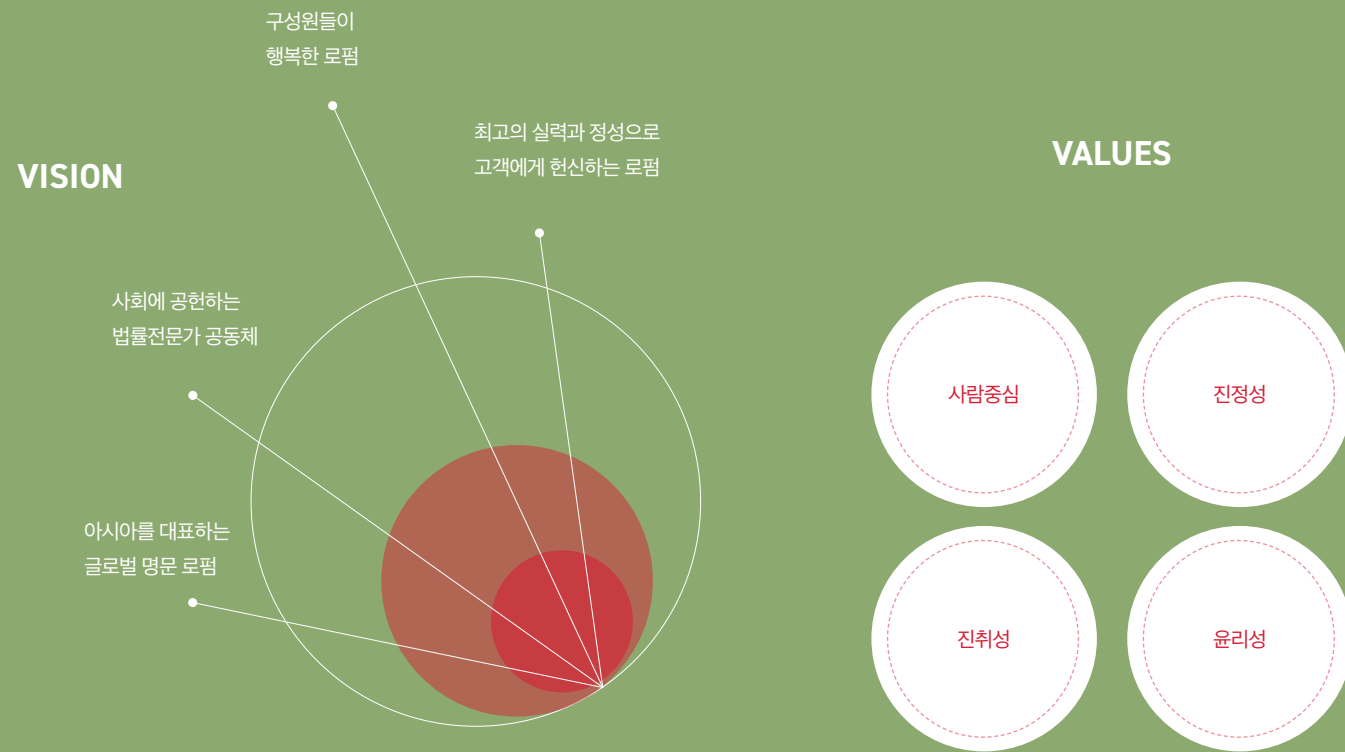
GLOBAL REACH

지평은 11개의 국내 및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전문성 강화를 위한 많은 투자와 노력으로 해외업무 선도 로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중국, 러시아·중앙아시아, 일본, 중동, 유럽, 미국 등 해외 각국에서 투자·진출, M&A, 금융, 부동산, 에너지, 인프라, 분쟁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해외 사업 진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관련 업무에도 오랫동안 정진하여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02

지평의 비전과 가치



2021년 경영 방침

Servant Leadership (구성원을 섬기는 경영)

- Communication in field (현장 소통)
- Professionalism First (프로정신 우선)
- Innovation in detail (세부 혁신)

2021년 브랜드

-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
- 어려운 일을 잘하는 로펌
- 빠르고 친절한 로펌

2021년 슬로건

열정과 신뢰, 공동의 성취

03

사회적가치 경영 추진 현황

사회적가치 경영 시스템 구축과 내재화를 위한 노력

지평의 사회적가치위원회(Social Value Committee)는 임성택 대표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지속가능한 목표 설정과 중장기적 실천 과제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가치 경영을 전사적 과제로 내재화하고 이를 실현·추동하며, 인사, 교육, 업무, 조달, 지배구조, 환경 등 조직의 모든 영역과 법조사회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사회적가치의 관점을 반영시키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평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글로벌컴팩트 등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세미나,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가치위원회

임성택 대표변호사(사회적가치위원회 위원장), 김지형 대표변호사(윤리위원회 위원장), 양영태 대표변호사(경영위원장), 김상준 변호사(경영위원), 김영수 변호사(공익위원회 위원장), 서준희 변호사(HR위원회), 황인영 변호사(환경실천소모임)

기업, 공공기관, 시민사회의 사회적가치 실현 지원

지평은 2020년 9월 ESG센터를 설립하여 국내 최고의 ESG 자문과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ESG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국제적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평과 두루는 장애인권, 아동·청소년 인권, 사회적경제, 국제인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사회단체 등 NGO들과 긴밀한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공익소송, 공익자문, 공익연구 사업 등의 활동을 통해 인권을 옹호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정한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평은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 대상 법률자문·1 변호사 1 소셜벤처 매칭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내부신고 시스템 '소통하라인'을 통해 기업의 준법경영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공익인권활동, 공익소송 및 연구 지원사업

지평과 두루는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부각되는 인권 문제에 집중하고자 '코로나 시대의 공익인권 활동, 공익소송 및 연구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지원사업에는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 연구자들, 변호사들이 지원하였고, 코로나19와 인권문제, 감염병 예방법상 방역과 인권의 관계에 관한 고찰, 코로나와 장애인 또는 수용자의 인권 문제 등을 다루는 프로젝트 등 총 9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과제와 함께 코로나19로 악화된 거리청소년에 대한 긴급 지원, 장애 성인학생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대응활동에도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업일정



수행 사업명	사업 수행자
코로나19 시대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 전라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목포대학교팀
코로나19와 수용자의 인권에 관한 국제인권법 및 해외 주요국의 동향 연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감염병위기 수용자인권팀
코로나 시대의 장애인권 현황과 장애인권운동 아카이빙	박남선, 신세영, 최호영
코로나19와 범죄화 : 코로나19 관련 사법처리 현황과 문제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코로나19와 인권 연구모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방역과 인권에 관한 고찰	백경희(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코로나19와 장애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
코로나 상황 하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재학대) 사례 분석 및 그에 따른 법적 대응과 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치하는 엄마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아동학대TF
코로나19 거리청소년 긴급지원 두루두루 뽀뽀뽀	들꽃청소년세상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성인학생의 학습권 침해 문제 대응	사단법인 전국장애인아학협의회

‘지평 지속가능경영의 과제, 소통과 실천’을 주제로 웨비나 진행

지평은 2019년 사회적가치경영 선언 후 매년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보고서 발간에 맞추어 구성원들에게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의미와 발간절차, 글로벌 기준 및 보고서 내용에 대해 소개하는 웨비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평이 구성원, 고객, 지역 및 법조사회와의 관계에서 지속가능한 경영과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에 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과 동시에 보고서 각 부분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개진을 통해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일시 : 2021년 11월 3일
대상 및 방법 : 지평 서울사무소 강의실 & 팀즈 화상회의

발표 주제 / 토론	발표자
발제 1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의미, 글로벌기준, 발간절차 해외로펌 모범사례 소개	마한얼 변호사
발제 2 2020년 지평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의미	김영수 변호사
토론 지평 지속가능경영의 과제, 소통과 실천	[토론자] - 경영위원 : 김상준 변호사 - 구성원변호사 : 장풍 변호사 - 예비구성원 대의원 : 박봉규 변호사 -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의원 : 조원의 차장 [참가자 질문 및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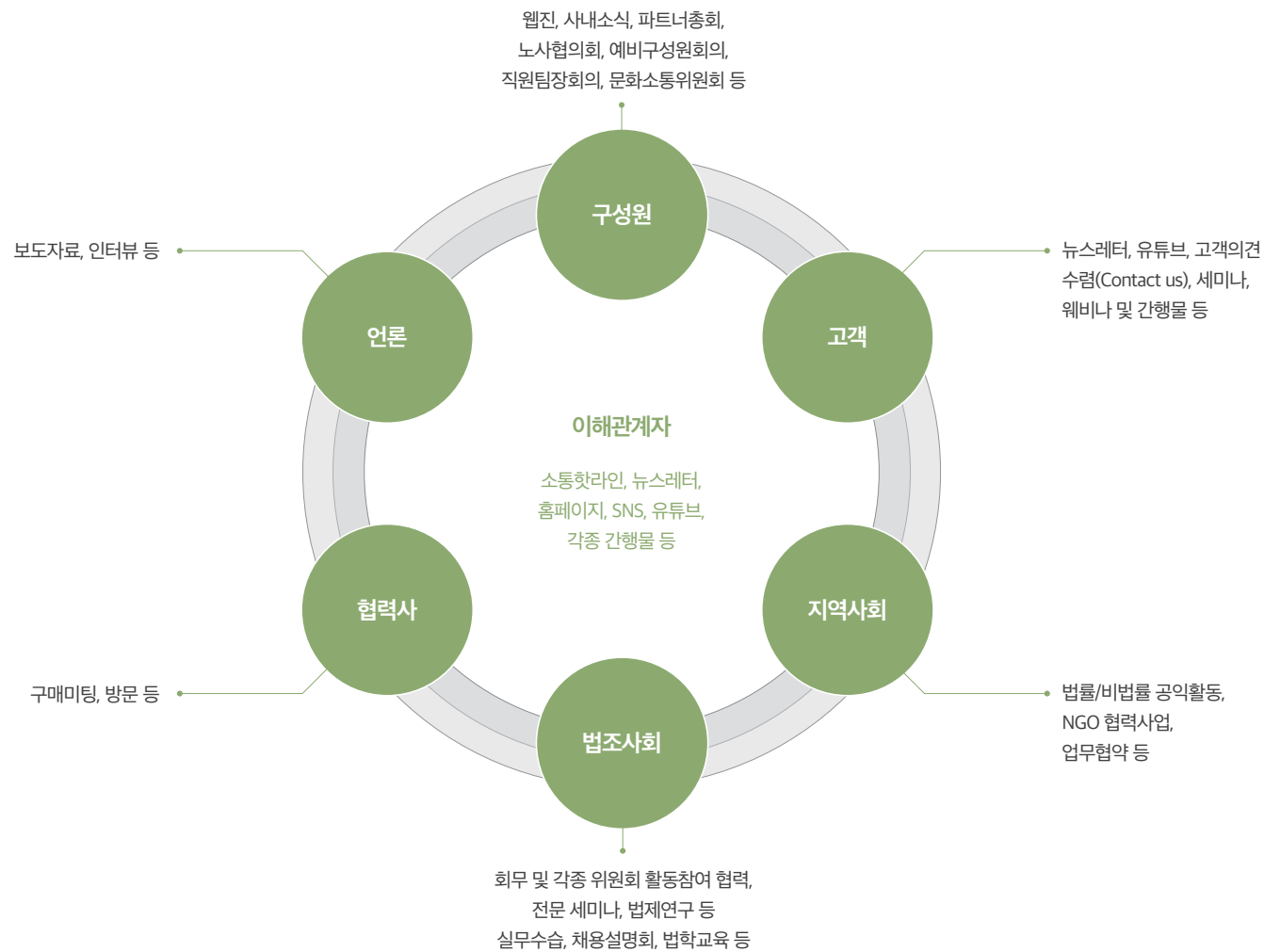
04

이해관계자

지평의 이해관계자

지평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구성원, 고객, 지역사회, 법조사회, 협력사, 언론 및 공공기관을 주요 이해관계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며, 이를 경영 활동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두터운 신뢰관계를 형성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	범위	관심 이슈
구성원	국내외 모든 사무소의 임직원 (한국변호사, 외국변호사, 회계사, 전문가, 직원 등)	- 합리적인 지배구조 및 민주적인 의사결정 - 구성원들이 행복한 로펌 - 법조윤리의 준수
고객	지평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은 법인 또는 자연인	- 최고의 실력과 정성으로 고객에게 헌신하는 로펌 - 고객의 정보보호 및 비밀준수
지역사회	지평의 사무소가 있는 지역(서울, 순천, 부산, 상하이, 호치민시티, 하노이, 자카르타, 프놈펜, 비엔티안, 양곤, 모스크바)과 그 주민, 단체, NGO	- 고객의 정보보호 및 비밀준수 - 그린오피스 정책
법률가	-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 단체 - 법원, 검찰 등 실무가 - 법학 교수, 연구자 등 학계	- 고객의 정보보호 및 비밀준수 - 최고의 실력과 정성으로 고객에게 헌신하는 로펌 - 법조윤리의 준수
법조사회	예비 법률가 -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 실무수습 참여자	- ESG, 신기술, 신산업 등 신규 업무영역의 개척 -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 구성원 역량 개발 및 교육
협력사	지평이 서비스나 제품을 구매하거나 중개 받는 회사	- 법조윤리의 준수
언론	지평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보도하거나 지평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	- ESG, 신기술, 신산업 등 신규 업무영역의 개척



구성원

지평은 구성원을 대상으로 비정기적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사안에 따라 그룹별 인터뷰의 형식으로 세대별 다양한 의견청취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변동사항은 구성원에게 즉각적으로 공유되며, 여러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웹진, 사내소식
- 파트너총회, 노사협의회, 예비구성원회의, 직원팀장회의, 문화소통위원회



고객

지평은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소통 뿐 아니라 뉴스레터, 세미나 또는 웨비나를 활용하여 새롭게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평 구성원이 외부에 기고한 연구논문, 판례평석, 칼럼 등을 모아 간행물을 지속적으로 발행함으로써 지평의 활동을 더 자세히 알리고, 지평 내부의 연구분위기를 활성화하며 업무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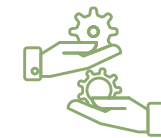
- 뉴스레터
- 유튜브, 고객의견 수렴(Contact us)
- 세미나, 웨비나 및 간행물



지역사회

지평은 법률교육과 상담 등 지역 법률 수요에 다양한 방식으로 부응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평은 지역의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자원봉사와 기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 미혼 한부모 생활시설 애란원에서 법률 교육과 법률 상담 진행
- 탈북청소년들과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2세 아동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거례열학교 후원
- 노숙인들의 자활지원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
- 빵을 구워 나누는 빵 만드는 사람들 공동체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빵 만들기 참여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참여·지원

지평의 변호사들은 정부와 공공기관에 자문을 제공하고, 다양한 위원회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지평은 사회의 여러 이슈에 귀를 기울이고 전문가로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64명의 전문가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위원회 또는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활동 기관은 207건에 이릅니다. 지평은 2019년에 한국 로펌 중 최초로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고,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평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은 다양한 학회와 전문가단체 및 NGO에 참여하여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